

## 중년층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및 노인주거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festyle types of the Middle Ages and Senior Housing Characteristics

윤정숙\*

Yoon, Chung-Sook

김한나\*\*

Kim, Han-Na

신수영\*\*\*

Shin, Soo-Young

강지혜\*\*\*\*

Kang, Ji-Hye

#### Abstract

Recently elderly has been recognized as a healthy and active generation because of extended average life span by medical development, interests in health, and achieved economic power while elderly was regarded as a passive and dependant generation b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ifestyle types and housing consciousness of the middle ages around fifty's who will have more inclinations in the future to consider the housing problems of elderly. To collect the data, LOV survey method was used for 600 middle ages about their lifestyles and future housing types. The data analysis used SPSS PC 12.0 to find the frequency, chi-square,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lifestyle was segmented into five groups and there were differences on demographics such as education and income, also on housing sizes and types of home-ownership types. Second, there were different preferences on the types of senior housing by different lifestyles whereas there were similar on the location and sizes of houses by different clusters.

Keywords : Middle Ages, Life style, Senior Housing Type, LOV

주 요 어 : 중년층, 라이프스타일, 노인주택유형, LOV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고령자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경제력 강화 등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행동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대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50대 전후의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기, 즉 사회의 주요 소비주체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중년층에서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또한 달라진 중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은 그들의 노후에 선택하게 될 주택유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택유형을 세분화하고 주의식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수들이 많이 이용되었으나, 소비시장이 복잡해지고 소비자들의 개성이 다양해지면서 사회 인구학적 요소들이 안고 있는 단조로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동기적 특성이나 가치체계 등 심리 묘

사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변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전체 사회 속에서 특정 문화나 집단을 다른 문화나 집단과 뚜렷이 구분지을 수 있는 문화, 상징, 생활의식이나 행동양식 등의 총화”(Lazer, 1963)라 할 수 있으며, 전체소비자를 개별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이 가지는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알 때 그들의 구매행동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박성연, 최신애, 1999). 따라서 현재 중년층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그들의 생활패턴과 주거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향후 노인주택 실거주자의 삶의 방식을 미리 예측해 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층<sup>1)</sup>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각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 주택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중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고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관련하여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알아본다. 두 번째, 중년층의 노후주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학술박사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과정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이 논문은 2005년도 연세대학교 논문지원연구로 수행되었음. (2005-1-0200)

1) 2006년 현재 40~50대를 형성하는 이들은 전후세대로서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인 1945~60년에 출생률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일본에서는 1948년 전후,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끝난 1955년 이후 출생률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0대 이상 60대 미만을 중년층으로 정의하였다.

유형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노후주택 선호 경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의 선정 및 방법

중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회망하는 주거조건 및 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 중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계층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일시는 2005년 12월 12일에서 31일까지이며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51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내용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측정은 LOV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조사한 자료정리와 분석도구로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을 하였다. LOV방식의 측정문항은 고경순(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주거학 전문가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VALS(Values and Life Style) (Mitchell, 1983), LOV(List of Values) (Kahle, 1983), 그리고 AIO(Wells, 1975)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AIO법은 Activities(활동), Interests(관심), Opinions(의견),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6개의 하위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AIO법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문항을 선정하므로 자료수집이 어렵고 문항별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VALS는 전체 소비자를 9가지 유형으로 유형화하여 자원의 보유정도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소비행동과 레저활동 등을 설명, 예측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문항의 내용이 상업적인 측면이 강하며 미국인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그대로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LOV는 Kahle(1983)에 의해 만들어진 측정도구로서 9개의 가치항목<sup>2)</sup>으로 가치관을 통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2) LOV 측정 문항에 포함된 9개의 가치 항목은 "self respect", "security", "warm relationship", "sense of accomplishment", "fulfillment", "sense of belonging", "being well respected", "fun and enjoyment in life", "excitement"이다. 설문 문항은 이러한 가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된 기존의 LOV를 사용한 선행논문을 참고로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라이프스타일 측정법의 장 · 단점

	장 점	단 점
A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 간의 차이를 활동, 관심, 의견의 차원에서 명확히 분류 가능</li> <li>•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문항의 변형이나 수정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수집이 어렵고 항목 간 중첩성이 비교적 큼</li> <li>•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문항을 선정하므로 문항별 신뢰성과 타당성이 문제</li> </ul>
LO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행동의 추세 예측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포함될 경우 VALS보다 유용성이 높음 Novak &amp; MacEvoy (1990)</li> <li>• 항목수가 적어 연구상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정서에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필요</li> <li>•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제외될 경우 예측력 떨어짐</li> </ul>
V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li> <li>• 대상이 미국인일 경우 효과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적인 목적의 도구</li> <li>• 문항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미국적이기에 우리 실정에 부적합</li> </ul>

위의 방법 중 LOV법은 절제된 항목구성으로 주관적인 개인의 해석에 좌우될 가능성성이 적어 국제적인 조사에의 적용성이 높으며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와 함께 측정될 경우 LOV의 약점이 보완되어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측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OV측정법에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을 첨가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였다.

### 2. 중년층의 라이프스타일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과거 노인들은 보수적이며 자녀에 의존적이고 주로 노인끼리 어울리며 유행에 둔감하다고 돼 있다. 노인들은 삶에 있어 미래 지향적인 요소가 결여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향후 10년~20년 후 노인이 될 현재의 중년층은 과거의 노인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노인 세대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 블 시대에 태어나 현대사의 발전을 이룩하며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과거의 노인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급변하는 사회 시스템을 잘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문화교류로 사회 참여에 대한 많은 욕구를 갖고 있다. 이들은 건강과 취미 생활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하며 나이와 짙음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 · 중반<sup>3)</sup>의 중년층과 2000년 이후 중년층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채서일(1992)의 연구에서는 보수적 생활무관심형의 상당부분을 50대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유형은 학력수준이 낮으며 저소득 계층이 많은 편이었다. 여가관련행위에 관심이 낮고 편중된 여가생활 즉 바둑, 장기, 화투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에서 라이프스타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90년대 초반 채서일(1992)의 연구이후부터이다.

윤종선(1994)의 연구에서는 소극적 전통보수형과 내성적 가족지향형이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유형 역시 학력수준이 낮으며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0년 이후의 중년층에 대한 연구에서는 약간 변화된 생활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한성지(2002)의 연구에서는 실리적 물질추구형이 전체의 42.9%를 차지했으며 활동적 경제절약형이 25%로 두번째로 높은 유형이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나 자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정란(2002)의 연구의 경우 자기중심형과 현실순응형이 모두 19%로 가장 높은 유형을 나타냈다. 과거의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났던 보수적이고 현실에 순응하는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강민정(2003)의 연구에서는 보다 확연히 달라진 중년층의 생활태도를 볼 수 있다. 50대의 대부분이 신세대 유행추구 노인형에 속하였으며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가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금룡(2004)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에 대해 인터넷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취미생활을 충실히 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00년 이후 연구에서는 중년층에 대해 경제적으로 절약하고 물질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적극적인 생활양식과 여가에 대한 관심의 증가, 고학력자가 많아지며 소비수준이 높아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주택유형, 소유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남성이 전체의 45%, 여성이 55%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으며 40대가 55%, 50대가 45%로 40대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또한 대상자의 64.3%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75%가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이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71.3%로 전체의 2/3이상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주부와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택의 규모는 30평대가 44.1%, 40평대 이상이 36.5%로 전체의 80.6%가 중대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유상태는 자가의 비율이 84.9%로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002년 자료를 토대로 최근에 발표된 홍두승(2005)의 개념을 사용하여, '2년제 대학 이상 졸업,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상, 자가 20평 이상 또는 전월세 30평 이상'을 중산층으로 보았으며,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상<sup>4)</sup>을 중산층의 소득기준

표 2. 조사대상기구의 일반적인 특성

n = 515, 빈도(%)

항 목		빈도(%)
성별	남	232 ( 45.0)
	여	283 ( 55.0)
	계	515 (100.0)
연령	40대	283 ( 55.0)
	50대	232 ( 45.0)
	계	515 (100.0)
학력	고졸 이하	184 ( 35.7)
	대학	282 ( 54.8)
	대학원 이상	49 ( 9.5)
	계	515 (100.0)
가구 특성	행정관리직/사무직	133 ( 25.8)
	전문직	111 ( 21.6)
	자영업	81 ( 15.7)
	주부	139 ( 27.0)
	기타 <sup>5)</sup>	51 ( 9.9)
	계	515 (100.0)
직업	있다	480 ( 93.2)
	없다	35 ( 6.8)
	계	515 (100.0)
배우자 유무	300만원 미만	129 ( 25.0)
	300-500만원 미만	219 ( 42.5)
	500만원 이상	167 ( 32.4)
	계	515 (100.0)
월평균 소득	20평대	100 ( 19.4)
	30평대	227 ( 44.1)
	40평대 이상	188 ( 36.5)
	계	515 (100.0)
주택 규모	단독주택	57 ( 11.1)
	아파트	367 ( 71.3)
	기타 <sup>6)</sup>	91 ( 17.7)
	계	515 (100.0)
주택 유형	자가	437 ( 84.9)
	차가	78 ( 15.1)
	계	515 (100.0)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37 ( 84.9)
	차가	78 ( 15.1)
	계	515 (100.0)

으로 하였다. 그 결과 홍두승(2005)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은 331명으로 전체 조사자의 64.3%로 나타났다. 또한 '나는 건강하다'라는 질문에 전체의 87.8%가 '보통이다' 이상으로 대답하였다. 중산층이상 계층에서는 324명이 이 질문에 '보통이다' 이상으로 대답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62.9%가 계층적으로는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의 고소득계층이며 건강한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예비노령자에 대한 표본 선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5) 기능적 및 단순노무자가 포함되어 있음

6)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빌라와 연립주택, 상가주택 등이 여기에 속함

4) 2005년 4/4분기 연간 가계수지동향: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325만원

## 2. 라이프스타일 분석결과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위해서 LOV를 구성하고 있는 29개의 초기문항 중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제외한 25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항목들을 요인분석 하여 6개의 요인을 추출<sup>7)</sup>하였으며 이 요인들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5가지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도출해 내었다. LOV문항 내용에 근거하여 추출된 각 요인들은 대인관계 중시 요인, 자기신뢰 요인, 여가지향 요인, 자기계발 요인, 규범중시 요인, 가족중시 요인으로 명명하였다<표 3>.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요인을 군집분석(K-Means) 한 결과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표 4>. 군집 1은 “개인적 자아추구형”으로 명명하였으며, 특징은 자기 계발 요인과 자기 신뢰 요인이 높게 나온 집단으로서 일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성향이 매우 강하고, 자기 신뢰 성향도 강하지만, 대인관계 성향이나 가족 중심 성향도 매우 낮은 개인적 성향이 강조되는 집단이다. 군집 2

표 3.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값
대인 관계 중시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눈다.	802
	나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794
	나는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	707
	나는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	677
자기 신뢰	나는 술과 노래가 있는 모임을 좋아한다.	501
	나는 ‘나의 노후가 밝다’고 확신한다.	751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716
	나는 5~10년 후 나의 모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641
여가 지향	나는 나의 인격을 믿는다.	634
	현재 취미나 여가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748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다.	719
	수입을 위해 일을 더 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676
자기 계발	만족스런 여가를 위해서는 다소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605
	내 손으로 글을 직접 쓰거나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796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598
	내가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나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	530
규범 중시	핸드폰의 카메라나 문자메세지를 즐겨 이용한다.	487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나의 약속을 꼭 지키도록 노력한다.	732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모범적이다라는 평판을 받도록 노력한다.	531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그에 버금가는 다른 관심사가 있다(역코딩).	728
가족 중시	나 자신 보다는 가족이 훨씬 중요하다.	661
	배우자는 노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반자이다.	516

7) 요인에 대한 이름짓기는 각 요인이 함축하고 있는 LOV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되 요인적재량의 크기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주관적 판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4. 군집분석 결과

n = 515, 빈도(%)

군집명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Sig.
	개인적 자아 추구형	소극적 가족 지향형	적극적 자기 계발형	보수적 자기 신뢰형	외향적 대인 중시형	
대인관계 중시요인	-.705	-.138	.671	-.404	.627	.000
자기신뢰 요인	.394	-.850	.469	.524	-.442	.000
여가지향 요인	-.576	-.845	.392	.590	.298	.000
자기계발 요인	.623	-.137	.997	-.664	-.370	.000
규범중시 요인	-.105	.263	-.322	.243	-.167	.000
가족중시 요인	-.752	.730	.747	.390	-.910	.000
빈도(%)	94(18)	100(20)	80(16)	121(23)	120(23)	-

는 “소극적 가족지향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자신보다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고, 타 군집에 비해 약속을 지키거나 모범성을 보이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취미나 여가생활, 운동은 즐기는 성향은 낮다. “적극적 자기 계발형”이라 명명한 군집3의 특징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성취욕구가 강하고, 여가를 즐긴다. 또한 가족중심적이고 대인관계도 적극적인 집단이다. 즉 대인관계와 자기계발, 자기신뢰, 여가를 지향하는 태도에서 모두 굉장히 적극적인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 군집 4는 여가생활을 중시하며 자신에 대한 신뢰와 노후에 대한 확신이 높으나 새로운 생활에 대한 적응이나 성취 욕구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와 자기계발보다는 규범과 자기에 대한 신뢰가 높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 군집 4를 ‘보수적 자기신뢰형’으로 명하였다. 군집 5는 “외향적 대인중시형”으로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사교적인 성향이 강하며 여가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가족중심적 성향은 매우 낮고, 자기신뢰 성향이 낮은 집단이다. Duncan검증 결과 군집별 유의확률이 모두 .000으로 신뢰도 99%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본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5>. 개인적 자아추구형은 여성과 40대의 비율이 높다. 이 점은 외향적 대인중시형과 비슷하나 외향적 대인중시형에 비해 소득이 낮은 편이며 주택의 크기가 소형이며 차가의 비율이 높다. 소극적 가족지향형은 고졸이하의 학력을 소유한 비율이 높으며 직업에 있어서 기타의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편이다. 주택의 크기에 있어서는 소형평형 거주자의 비율이 높으며 차가의 비율 또한 높은 편이다.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정도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군집이다. 적극적 자기계발형은 대졸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많으며 특히 대학원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전문직 비율이 높으며 자가의 비율이 90%로 가장 높다. 40평형 이상의 대형평형 거주자의 비율이 높으며 월 소득 500만

표 5. 라이프스타일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515, 빈도(%)

항목		군집명	개인적 자아 추구형	소극적 가족 지향형	적극적 자기 계발형	보수적 자기 신뢰형	외향적 대인 중시형
성별	남	34 (36.2)	55 (55.4)	42 (52.5)	55 (45.5)	46 (38.3)	
	여	60 (63.8)	45 (45.0)	38 (47.5)	66 (54.5)	74 (61.7)	
	합계	94 (100.0)	100 (100.0)	80 (100.0)	121 (100.0)	120 (100.0)	
$\chi^2 = 10.982^*$ df = 4 sig. = 0.027							
연령	40세~50세 미만	60 (63.8)	52 (52.0)	45 (56.3)	52 (43.0)	74 (61.7)	
	50세~60세 미만	34 (36.2)	48 (48.0)	35 (43.8)	69 (57.0)	46 (38.3)	
	합계	94 (100.0)	100 (100.0)	80 (100.0)	121 (100.0)	120 (100.0)	
$\chi^2 = 12.596^*$ df = 4 sig. = 0.01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31.9)	52 (52.0)	26 (32.6)	41 (33.9)	35 (29.2)	
	대학교 졸업	53 (56.4)	43 (43.0)	39 (48.8)	70 (57.9)	77 (64.2)	
	대학원 졸업 이상	11 (11.7)	5 (5.0)	15 (18.8)	10 (8.3)	8 (6.7)	
	합계	94 (100.0)	100 (100.0)	80 (100.0)	121 (100.0)	120 (100.0)	
$\chi^2 = 31.574^{**}$ df = 8 sig. = 0.002							
소득	300만원 미만	28 (19.8)	47 (47.0)	15 (18.8)	18 (14.9)	21 (17.5)	
	300~500만원 미만	39 (41.5)	42 (42.0)	26 (32.5)	53 (43.8)	59 (49.2)	
	500만원 이상	27 (28.7)	11 (11.0)	39 (48.8)	50 (41.3)	40 (33.4)	
	합계	94 (100.0)	100 (100.0)	80 (100.0)	121 (100.0)	120 (100.0)	
$\chi^2 = 56.400^{***}$ df = 8 sig. = 0.000							
직업	행정관리직	22 (23.4)	28 (28.0)	20 (25.0)	33 (27.3)	30 (25.0)	
	전문직	21 (22.3)	9 (9.0)	33 (41.3)	22 (18.2)	26 (21.7)	
	자영업	21 (22.3)	19 (19.0)	8 (10.0)	14 (11.6)	19 (15.8)	
	주부	21 (22.3)	24 (24.0)	15 (18.8)	43 (35.5)	36 (30.0)	
	기타 <sup>8)</sup>	9 (9.5)	20 (20.0)	4 (5.0)	9 (7.4)	9 (7.5)	
	합계	94 (100.0)	100 (100.0)	80 (100.0)	121 (100.0)	120 (100.0)	
$\chi^2 = 49.682^{***}$ df = 16 sig. = 0.000							
주택 규모	20평대 이하	22 (23.4)	37 (37.0)	13 (16.3)	15 (12.4)	13 (10.8)	
	30평대	47 (50.0)	40 (40.0)	31 (38.8)	51 (42.1)	58 (48.3)	
	40평대 이상	25 (26.7)	23 (23.0)	36 (45.0)	55 (45.5)	49 (40.8)	
	합계	94 (100.0)	100 (100.0)	80 (100.0)	121 (100.0)	120 (100.0)	
$\chi^2 = 47.276^{***}$ df = 12 sig. = 0.000							
소유	자가	77 (81.9)	74 (74.0)	72 (90.0)	107 (88.4)	107 (89.2)	
	차가	17 (18.1)	26 (26.0)	8 (10.0)	14 (11.6)	13 (10.8)	
	합계	94 (100.0)	100 (100.0)	80 (100.0)	121 (100.0)	120 (100.0)	
$\chi^2 = 14.388^{**}$ df = 4 sig. = 0.006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보수적 자기신뢰형은 50대의 비율이 높은 유일한 집단이며 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3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외향적 대인중시형은 개인적 자아추구형과 성별과 연령의 비율이 비슷하나 학력과 주택크기, 소유상태, 소득부분에 있어서 보다 중산층에 가까운 집단이다.

라이프스타일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교차분석 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주택규모, 소유형태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 유형화된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개인적 자아추구형’으로서, 가족이나 대인 관계에 관심이 적은 개인적인 집단으로, 자아를 신뢰하며,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시도하여 만족감을 느끼려는 유형이다. 여성과 40대의 비율이 높다. 두 번째 라이프스타일은 ‘소극적 가족지향형’으로서, 가족지향적인 성향에 모범적이고 책임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닌다.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학력과 주택규모,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차가비율이 특징이다. 세 번째 라이프스타일은 ‘적극적 자기계발형’으로써, ‘소극적 가족지향형’과는 반대로 규범중시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 자아를 신뢰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 하며, 인간관계에도 적극적이다. 가족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학력, 소득, 주택규모, 그리고 자가율의 특징을 지닌다. 네 번째 라이프스타일은 ‘보수적 자기신뢰형’으로서 자아를 신뢰하며 여가시간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대인관계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작하는 것에는 관심이 덜하다. 이 유형은 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다섯 번째 라이프스타일은 ‘외향적 대인중시형’으로서, ‘개인적 자아추구형’과 마찬가지로 40대 여성이 많은 집단으로 대인 관계에 매우 적극적이며, 가족 중심적 성향은 가장 낮은 집단이다.

### 3.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희망하는 노후주거와의 관계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거입지로는 ‘교통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연환경이 좋은 곳’과 ‘의료, 쇼핑, 문화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대한 선호도는 특히 소극적 가족지향형과 적극적 자기계발형이 가장 높았다<표 6>.

노후주택의 크기의 경우 5개 라이프스타일 유형 모두 반수가 20~30평형대 주택 크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소극적 가족지향형과 외향적 대인중시형은 20평형대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개인적 자아추구형과 적극적 자기계발형의 경우는 20평형대와 30평형대의 선호도가 비슷하다. 보수적 자기신뢰형의 경우 30평형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

8) 기능적 및 단순노무자가 포함되어 있음

표 6. 라이프스타일별 희망하는 주거입지

항목	군집명 개인적 자아 추구형	n = 515, 빈도(%)			
		소극적 가족 지향형	적극적 자기 계발형	보수적 자기 신뢰형	외향적 대인 중시형
교통이 편리한 곳	18 ( 19.1)	15 ( 15.0)	16 ( 20.0)	22 ( 18.2)	25 ( 20.8)
자연환경이 좋은 곳	33 ( 35.1)	52 ( 52.0)	32 ( 40.0)	43 ( 35.5)	38 ( 31.7)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	30 ( 31.9)	27 ( 27.0)	24 ( 30.0)	44 ( 36.4)	41 ( 34.2)
투자 가치가 있는 곳	4 ( 4.3)	1 ( 1.0)	2 ( 2.5)	1 ( 0.8)	2 ( 1.7)
여가를 즐기기 쉬운 곳	3 ( 3.2)	0 ( 0.0)	6 ( 7.5)	6 ( 5.0)	8 ( 6.7)
결측값(중복 · 무응답)	6 ( 6.4)	4 ( 4.0)	0 ( 0.0)	5 ( 4.1)	6 ( 5.0)
합계	94 (100.0)	100 (100.0)	80 (100.0)	121 (100.0)	120 (100.0)

사되었다. 그 외 20평형대 미만이나 40평형대 이상의 항목을 살펴보면, 20평형대 미만의 소형 규모를 희망하는 비율이 타집단에 비해 높게 나온 유형은 소극적 가족지향형(13%)이고, 40평형대 이상은 적극적 자기계발형(16.3%)에서 타집단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7>.

노후의 주거 이동 여부의 경우, ‘현 주택에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3.9%, ‘현 주택을 노후에 맞게 개조하여 살고 싶다’라는 사람은 20.2%로 현재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사람보다 ‘다른 주택으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전체의 54.8%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노후에 주택을 개조하거나 이동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표 8>.

표 7. 라이프스타일별 희망하는 주택크기

항목	군집명 개인적 자아 추구형	n = 515, 빈도(%)			
		소극적 가족 지향형	적극적 자기 계발형	보수적 자기 신뢰형	외향적 대인 중시형
20평형대 미만	3 ( 3.2)	13 ( 13.0)	6 ( 7.5)	3 ( 2.5)	5 ( 4.2)
20평형대	42 ( 44.7)	44 ( 44.0)	31 ( 38.7)	41 ( 33.9)	62 ( 51.6)
30평형대	42 ( 44.7)	38 ( 38.0)	30 ( 37.5)	62 ( 51.2)	35 ( 29.2)
40평형대 이상	7 ( 7.4)	5 ( 5.0)	13 ( 16.3)	15 ( 12.4)	18 ( 15.0)
합계	94 (100.0)	100 (100.0)	80 (100.0)	121 (100.0)	120 (100.0)

표 8. 노후의 주거이동 여부 n = 515, 빈도(%)

문항	빈도(%)
현 주택에 계속 살고 싶다	123( 23.9)
현 주택을 노후에 맞게 개조하여 살고 싶다	104( 20.2)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다	282( 54.8)
결측값(중복 · 무응답)	6( 1.2)
합계	515(100.0)

표 9. 라이프스타일별 희망주거유형

군집명 주택유형	개인적 자아 추구형	소극적 가족 지향형	적극적 자기 계발형	보수적 자기 신뢰형	외향적 대인 중시형
현 주택보다 큰 평수의 주택	14 ( 33.3)	18 ( 30.0)	9 ( 19.1)	23 ( 34.8)	17 ( 27.0)
현 주택보다 작 은 평수의 주택	8 ( 19.0)	7 ( 11.7)	6 ( 12.8)	13 ( 19.7)	10 ( 15.9)
노인전용주택	17 ( 40.5)	13 ( 21.7)	12 ( 25.6)	13 ( 19.7)	20 ( 31.7)
기타	2 ( 4.8)	20 ( 33.3)	19 ( 40.4)	13 ( 19.7)	13 ( 20.6)
결측값	1 ( 2.4)	2 ( 3.3)	1 ( 2.1)	4 ( 6.1)	3 ( 4.8)
합계	42 (100.0)	60 (100.0)	47 (100.0)	66 (100.0)	63 (100.0)

이동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사할 주택의 유형을 추가로 질문하였다<표 9>. 그 결과 라이프스타일별로 차이를 보인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전용주택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개인적 자아추구형(40.5%)과 외향적 대인중시형(31.7%)이다. 이 두 집단은 라이프스타일 요인 특성 중에서 가족중시 요인값이 가장 낮게 나왔던 집단으로서 개인적자아추구형은 -0.752, 외향적 대인중시형은 -0.910) 이러한 요인특성이 노인전용주택 선호 성향과 관련하여 그 영향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극적 가족지향형과 적극적 자기계발형의 두 집단은 기타 항목의 비율이 가장 큰 집단(소극적 가족지향형은 33.3%, 적극적 자기계발형은 40.4%)으로 다수가 기타 란에 따로 전원주택을 기입하고 있었다. 두 집단은 앞서 노인전용주택을 선호한 집단들에 비해 가족중시 요인이 높게 나왔던 집단이다(소극적 가족지향형은 0.730, 적극적 자기계발형은 0.747).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라이프스타일별로 선호하는 노후주거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라이프스타일 유형화를 위한 LOV법 측정 결과 1) 개인적 자아추구형, 2) 소극적 가족지향형, 3) 적극적 자기계발형, 4) 보수적 자기신뢰형, 5) 외향적 대인중시형의 5 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한편 희망하는 노후주택 선호 경향은 입지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자연환경과 편의시설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주택 크기, 주택 유형의 항목들에서 라이프스타일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적 자아추구형’은 자기 계발 요인과 자기 신뢰 요인이 높게 나오지만, 대인관계 성향 및 가족 중심 성향은 매우 낮은 개인적 성향이 강조되는 집단이다. ‘외향적 대인중시형’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비슷하나 소득과 주택 크기에서 ‘외향적 대인중시형’보다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

다. 개인적 자아추구형에서는 희망하는 노후주택 유형에서 노인전용주택을 선호했던 집단이다.

“소극적 자아추구형”은 규범중시와 가족지향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적극적 자기계발형’과 가장 뚜렷이 대별되는 유형이며,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학력과 주택규모,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차가 비율이 특징이다. 특히 이 군집은 노후주택 규모에서 20평형대와 30평형대를 가장 선호하지만 20평형대 미만의 소형평형 선호도가 타집단에 비해 높았던 집단이다.

“적극적 자기계발형”은 ‘소극적 가족지향형’과는 반대로 규범중시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5개의 유형의 집단 중 가장 높은 학력, 소득, 주택규모, 자가비율의 특징을 지닌다. 이 집단의 경우 40평형 이상의 넓은 평형대 선호도가 타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선호하는 주택 유형에서는 기타란(전원주택 기입)에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보수적 자기신뢰형”은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여가도 즐기나, 대인관계나 자기계발에는 소홀히 하는 특징을 지니며, 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이며, 현 주택보다 큰 평수의 주택을 희망하고 있다.

“외향적 대인중시형”은 40대 여성의 많았던 집단이며,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사교적인 성향이 강하며 여가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가족중심적 성향은 매우 낮고, 자기신뢰 성향이 낮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주택 크기에서 40평형 이상의 선호도가 높은 특징이 있으며, 개인적 자아추구형과 같이 노인전용주택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던 집단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예비노령층인 중년의 라이프스타일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별로 선호하는 노인주택의 특성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특성 외에 세부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후 주택의 입지, 유형, 규모에 대한 질문 항목으로 제한되어 공간 구성이나 디자인, 노후 서비스 등 보다 세부적인 주택 계획에 대한 선호 경향은 파악되지 못하였다. 향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 주택에 대한 수요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보안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재 일반 주택에 있어서도 다양해지는 수요에 대응한 맞춤식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노령층의 변화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예측하고 이를 대응해줄 수 있는 주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강민정(2003), 문화소비자로서의 실버계층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연구, 경희대학교.
2. 강병근(1999),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 유형, 대한

3. 고경순(1992), 대학생의 레포츠용품 구매행동 분석, 무역경영논집.
4. 고경필 외(1995), 중년층의 노년기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6(1).
5. 고희원(2000), 실버타운 입주 의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조선대 석사학위 논문.
6. 권오정(2000), 치매성 노인을 위한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1(2).
7. 김유정(2003), 예비노년층의 노년기 주거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8. 박성연(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특성, 마케팅연구, 11(1).
9. 박성연(1999),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변화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학회 연차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0. 박종민 외(2001), 인터넷과 TV의 매체속성과 이용 동기에 관한 수용자연구, 언론과학연구.
11. 신영숙(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2. 오찬옥(1992),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 본 노인주거모델.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3. 윤민희(1993), LOV 척도의 신뢰성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마케팅논집, 2.
14. 윤정숙 외(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한국인의 생활특성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15. 윤정숙 외(2002), 고령화사회와 실버산업, 연세대 생활과학 연구소 연구보고서.
16. 윤종선(1994), 우리나라 노인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7. 이금룡 외(200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중년층의 인터넷 사용행태, 한국노인복지학회, 24.
18. 이신숙(1998),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실태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 이의훈 외(2004), 라이프스타일을 통한 실버시장 세분화 연구, 한국노년학, 24.
20. 이정란 외(2002), 실버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정봉사원 서비스 전략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5.
21. 전명숙 외(1995), 서울시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노인주거 환경, 한국주거학회지, 6(2).
22. 정순희, 김현정(2002), 라이프스타일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비문화연구, 5.
23. 채서일(1992), 체계적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소비자학 연구, 3(1).
24. Kahle, L. R., Beatty, S. E., and Homer, P. (1986), Alternative measurement approaches to consumer values: The List of Values (LOV) and Values and Life Styles (VA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 (Dec).
25. Lazer, W. (1963), Lifestyle Concepts and Marketing, Toward Scientific Marketing. AMA.
26. Mitchell, A. (1983a), The Nine American Life Style, Macmillan.
27. Novak, T. P. and MacEvoy, B. (1990), On comparing alternative segmentation: The List of Values (LOV) and Values and Life Style (VA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 (Jun.).
28. Wells, W. D. (1974), Life Style and Psychographics, Chicago: A. M. A.

(接受: 2006. 12. 17)